

이소영의 '우리 지역 우리 식물'



대나무꽃의 의미, 담양 대나무밭에서

내가 그리는 식물 세밀화에는 식물이 삶에서 드러내는 모든 기관이 기록된다. 줄기와 가지, 잎, 꽃, 열매, 씨앗... 풀의 경우에는 뿌리도 그리지만 나무는 뿌리 대신 수피를 기록한다. 풀과 나무의 기록 부위가 다르다 보니 자연스레 나는 식물을 볼 때마다 우선 풀인지 나무인지부터 구분 짓게 되었다.

자 갈색을 띤 대나무 균락이 보였다. 그곳을 지나던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죽은 것 같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이 부족해 마른 것 같다고 했다. 그곳에 다가가 대나무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이들은 시들거나 죽은 게 아니라 갈색 꽃이 핀 것이었다. 왕대의 꽃은 녹색의 사마귀 같은 형태로 피어 난다. 이곳의 왕대꽃이 갈색인 이유는 꽃이 핀 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식물을 풀과 나무로 분류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형성층이 있어 부피 성장을 하는지와 목 질부가 있는지.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나무이고,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풀이다. 그래서 식물의 이름만 듣고 풀과 나무를 식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듬에 나무가 들어가는 데 실은 풀이거나, 나무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면 풀인 식물이 있기 때문이다. 대나무가 그렇다.

그렇게 사람들은 왕대꽃이 우리 생애 한 번도 보기 힘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었다.

대나무는 이름부터 '나무'이지만, 실상 부피 성장을 하지 않는 풀이다. 이들은 위로는 자라되 옆으로는 자라지 않는다. 게다가 속이 텅 비어 있어 나이트가 없다. 지난봄 담양의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가까운 대나무밭에 들렀다. 그곳에는 왕대가 자라고 있었고. 밭 입구에는 담양에서 재배되고 있는 왕대와 송대, 맹종죽, 신이대 등 담양에서 재배되고 있는 중에 대한 안내문이 있었다. 왕대가 뒤영진 연못빛 숲을 지나 어느 구역에 다다르

대나무의 꽃은 70-120년에 한 번 핀다고 알려진다. 일본 사람들은 대나무에 꽃이 피면 동네에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어 왔다. 대나무에 꽃이 피는 일이 아주 희귀하기도 하지만, 전쟁과 자연재해로 늘 위기를 맞았던 일본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식물이 대나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력하고 강한 생명력을 가진 이 식물은 일본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운의 상징이 되기에 충분했다.

식물은 어느새 사진을 찍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담양에 다녀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용인의 한 미술관 정원을 거닐다 사람들이 왕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혹시 이곳의 왕대도 꽃이 핀 것일까?' 반가운 마음에 왕대 균락에 다가서자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대나무 꽃이 피면 누가 죽는단대네, 꽃이 많이 피고 피었다. 무슨 일이라.' 나는 불운을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실은 대나무꽃이 행운을 상징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내가 담양에서 본 왕대와 용인에서 본 왕대는 비슷한 시기, 같은 형태의 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행운과 불운이라는 상반된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대나무는 대나무일 뿐이며, 꽃은 식물 삶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간의 문제는 과도한 의미 부여,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는 데에 있다. 식물을 연구한다는 것은 같은 자연 현상을 보고 희망을 품는 사람과 불운을 예견하는 사람들 속에서 흔들림 없이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하는 연수를 해 나가는 일인 것 같다.

결국 의미라는 것은 어느 대상이 가진 고유의 성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로부 터 부여받게 되는 것인걸 잘 대나무를 보며 깨닫는다.

의료칼럼

'직업병 안심센터'를 아십니까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시행하여 10명의 암 발생 의심자를 찾아냈다. 광주교육청은 조선대병원 직업병 안심센터(직업환경의학과)에 이들의 폐암 확진 여부와 암으로 확진 시 업무 관련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호흡기내과와 협진으로 10명 중 내원 의사가 있는 6명에 대해 문진과 진찰, 폐기능검사, 암표지자검사, 조영 증강 흉부 CT촬영을 실시하고, 1차 선별검사 시의 저선량 흉부 CT사진을 등을 종합하여 6명 모두 폐암은 아닌 것으로 판명하고, 앞으로 추적검사를 통해 관찰하기로 하여 폐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었다.

업환경의학과에서 기본적인 진찰과 업무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한 뒤, 피부질환이 있거나 피부암이 의심되는 노동자는 피부과로 협진을 의뢰하여 피부과 교수의 진찰과 암 조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하였다. 진찰에서 3명이 피부암이 의심되었으나 조직검사에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사마귀와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작업 중 여러 공구나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판단되어 조직검사 없이 치료하였다. 업무 때문에 바빠서 아직 방문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원하면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접촉성 피부염은 중한 질환은 아니지만, 일하다 보면 흔히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노동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급식 노동자(조리사)와 배전 전기 노동자는 전혀 다른 조합이지만 둘은 공통점이 있다. 직업적으로 유해 요인에 노출돼 질환 발생이 의심되지만, 그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두 직종의 종사자들이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위탁으로 조선대병원에 문을 연 직업병 안심센터를 찾았다.

배전 전기 노동자는 발전소와 송배전소를 잇는 전깃줄을 설치 및 관리하는 직업으로 흔히 길 가다가 전봇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업무 특성상 건설 노동자와 같이 옥외에서 그들이 없는 곳에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연스레 흡연·흡서·자외선·먼지 등에 노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직종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 일하는 것은 피부질환과 피부암의 가능성을 높이며, 이미 2명이 피부암으로 확진을 받고 산재를 신청하여 아직도 3년 동안이나 업무 관련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노동조합은 불안이 많다.

일하는 내용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직종이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다행히 이번에 의뢰된 노동자 모두에게서 암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작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때에는 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급식 노동자의 경우 조리실 내 환기 시설 개선과 조리 방법이나 식단 변경 등을 통해 조리 흡에 대한 노출을 줄여야 한다. 배전 전기 노동자도 햇빛 가리개나 안전모의 개선, 자외선이 가장 높은 시간대의 작업 회피가 필요하다.

배전 전기 노동조합에서는 피부암이 의심되거나 유사한 병변이 있는 20여 명을 직업병 안심센터에 피부암인지 확인을 의뢰하였다. 이중 10명이 방문하여 직

기고

풍암저수지를 최고 명품 호수로 만들자



고준일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하는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공원 사업자가 제안해서 시작된 사업이다. 사업자와 관할 기초단체인 광주 서구청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풍암호 수질 개선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풍암저수지 관리 기관, 환경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면서 수질 개선을 위한 12가지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는 현재의 수질 개선안을 도출했다.

체인 광주수가 수용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수립됐다.

최근 광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있다면, 아마도 풍암저수지 수질 개선 문제가 아닌가 싶다. '매립'과 '수면적 축소'라는 다소 자극적 단어들로 도배돼 본질이 왜곡되면서 가까 뉴스까지 재생산되는 실정이다. 이에 처음부터 '풍암호 수질 개선 태스크포스' (이하 TF)에 참여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진행 경과와 함께 풍암호수 공원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풍암저수지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강우 시 풍암호 파트 단지, 월드컵 경기장 등에서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질소, 인 외에도 토사, 협잡물 등이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현재와 같은 심각한 녹조 현상을 유발하고 바닥에 퇴적되면서 점차 수심이 얕아지는 습성 천이의 초기 단계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TF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될 기계식 처리 장치를 검토했으나 수백억 원이 넘는 초기 투자비, 연간 수십억 원의 유지 관리비, 위화감을 일으키는 대규모 기계실,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에너지 사용 문제 등으로 그 안을 배제했다. 또한 화학 응집제 등을 살포하는 '석촌호수' 방식도 검토했으나 석촌호수와 달리 하루에 대규모 농경지가 위치한 서창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화학약품 사용 방식 또한 배제하기로 했다.

만약 외부 오염 물질과 토사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현상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녹조로 인한 남세균 독소 물질이 발생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퇴적물 제거를 위한 주기적 준설로 생태계의 지속적인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외부 오염물질을 완전 배제하고, 내부 순환 자연 습지를 조성하는 현재의 수질 개선안을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현 풍암저수지 외형을 유지하는 원형 보존 수질 개선 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이 주장하는 '원형'이라는 것도 70여 년 가까운 풍암저수지 역사에서 겨우 10여 년 전에 인공으로 조성된 것에 불과하다. 특히 풍암저수지는 이제 농업용 저수지 기능도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45만 톤이라는 관리조차 버거운 저수량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관교한 풍암호 수질 개선 방식은 철저한 현황 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고, 관리 주

파라서 풍암저수지가 단순히 물만 보는 저수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산책하며 발도 담글 수 있고, 다양한 놀이시설도 즐기고, 새벽이면 토끼가 내려와 물도 마실 수 있는 자연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호수 공원으로 재탄생되길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여전한 빨리빨리 공사 아파트 붕괴 벌써 잊었나

올 한 해 광주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가 맨 먼저 꼽힐 것이다. 지난 1월 11일 이 아파트 201동 건설 현장에서 신축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여섯 명이 숨졌다. 철거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7개월만이었다.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라 일어난 후진국형 사고는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이런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광주일보의 현장 확인 결과 지난 20일 남구 봉선동 한 신축 주택 건설현장에서는 양생포를 덮은 작업이 한창이었다. 영하의 한파 속에 전날까지 내린 폭설이 채 녹기도 전에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진 것이다. 서구 쌍춘동의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도 골조 공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창호 시공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다.

정부와 경찰은 화정아이파크 사고를 콘크리트 양생 불량, 무단 공법 변경, 부실한 시공 관리 등이 맞물려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기준에 못 미치는 강도의 콘크리트를 6~10일 만에 타설한 것이 원인으로 짚었다. 겨울철 콘크리트가 굳는 데는 3~4주가 걸리는데도 일주일 만에 층씩 세워 올린 것이다. 시공사 측은 골조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창호·타일 등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작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빨리빨리 공사'였던 셈이다.

'빨리빨리 공사'가 횡행하는 것은 건설업체 입장에서 기간을 단축할수록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으려면 설계 단계부터 작업별 적정 공사 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발주처·시공사·감리 등 공사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지난 2020년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지만 여태껏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를 포괄해 불법 재하도급 처벌 강화, 부실 감리 방지 등을 담은 관련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것이다.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해서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명단이 공개됐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어길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로 드러났다.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과 목포시의료원도 장애인 고용률이 0.51%와 0.79%에 그쳤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 정도인 것을 보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할 만하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 정원의 3.4%,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3.1%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공공기관 의 의무 고용률의 80% (2.72%) 미만, 민간기업은 50% (1.55%) 미만인 경우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선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광주은행이 0.89%, 나주 혁신도시의 한전CSG가 1.07%였다. 이밖에 광주기동병원 (0.81%), 조선내화 (0.97%), 금호파넬비화학 (0.84%)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도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436곳을 공개했는데 광주·전남에선 15곳이 포함됐다. 지역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특히 광주전남연구원과 신안군복지재단은 장애인인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사전 예고를 했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명단이 공개됐다.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않는 이유는 부담금을 내면 된다는 비뚤어진 인식 탓이 크다. 부담금 기초액이 1인당 120만 원에 못 미치는 것도 원인이다.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할 때가 됐다.

無等鼓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프랑스는 정치 구조가 수시로 바뀌며 혼돈의 시기를 보냈다. 1789년 7월 프랑스 혁명의 성과로 1792년 9월 제1공화국이 들어섰고 이후 80여 년 간 왕정과 공화정이 다섯 차례나 뒤바뀌었다. '공포 정치'로 유명한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뒤 다섯 명의 총재가 이끄는 소위 '총재 정부'는 상호 견제에는 성공했으나 현안 해결에 있어 대단히 무기력했다.

물러났다. 제2 공화국을 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었다. 1851년 2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그는 이듬해 황제에 즉위했으나 1870년 9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서 왕좌에서 내려왔다.

이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799년 11월 쿠데타로 '통령 정부'를 수립, 1804년 5월 황제에 오르며 제1 제국을 열었다. 하지만 1815년

흔히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제왕적'이라고 표현한다. 왕에 버금갈 만큼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어떤 대통령은 인기 관리에만 치중하며 국민이 바라는 개혁 추진에는 무능을 보였고, 또 어떤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해 모든 기준을 제멋대로 바꾸러 든다. 가히 우리 나라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대 프랑스에서 반복된 극단적인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해 서라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왕 같은 대통령

이후 즉위한 루이 필리프 1세는 혁명 세력으로부터 '시민왕'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지만 그 역시 보통선거와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는 1848년 2월 혁명으로

모든 기준을 제멋대로 바꾸러 든다. 가히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대 프랑스에서 반복된 극단적인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해 서라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후 즉위한 루이 필리프 1세는 혁명 세력으로부터 '시민왕'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지만 그 역시 보통선거와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는 1848년 2월 혁명으로

지금 정치권은 여야를 바꿔 가며 수십 년간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의 '반동'에 곳곳에서 반발이 일었고, 1830년 7월 혁명으로 강제 퇴위됐다.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